한화투자증권

2026년 4월 13일

Fixed Income & Cred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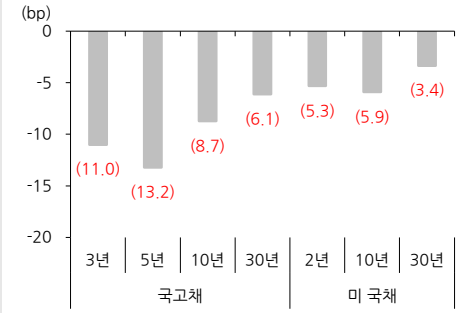
FI Weekly

연준과 재무부의 Coincidence

▶ 채권전략 김성수 sungsoo.kim@hanwha.com / 크레딧 한시화 shhan1229@hanwha.com

[주요 데이터 및 차트]

주간 한미 국채 금리 변동



주간 금리 예상 Range

금리, 스프레드	전주(4/9)	예상 Range	방향성
국고 3년	3.34%	3.30~3.40%	약보합
국고 5년	3.49%	3.45~3.55%	약보합
국고 10년	3.66%	3.63~3.73%	약보합
국고 10-3년	32.2bp	25.0~35.0bp	축소
미국 10년	4.28%	4.25~4.40%	약보합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통화, 재정당국의 수요 공급 일치

연준은 재정증권 매입을 확대 중이고, 앞으로도 한동안 그럴 것. 대차대조표를 축소하고 싶어하는 이들도, 현 수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들도 단기 국채 위주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축에는 적극적으로 동의

연준의 주요 부채 항목 특성상 모두 유동성이 풍부한 단기 자산으로 매칭해 놓는 것이 적절. 재정증권이 필요한 이유. 장기채권은 축소가 필요. 장기 구간은 시장 참가자들의 성장과 물가 전망이 반영되어 가격이 결정. 현재 연준의 존재는 그 자체로 시장 메커니즘을 왜곡시키고 있음. 미국 전체 잔존 중장기 국채는 21.2조달러. 이 중 16.7%인 3.6조달러가 연준 소유. 재정증권은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으나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 QT 종료 이후 2,171억 달러어치를 매수했음에도 연준의 전체 국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6%

정부는 돈을 많이 쓰고 싶어함. 그런데 이표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사실상 한계 수준. 금리도 너무 높고, 재정 건전성과 대외 신인도 약화로 투자심리도 예전 같지않은 편. 좋든 싫든 재정증권 발행으로 씀씀이를 메꾸는 것이 불가피. 연준은 재정증권을 계속해서 사들여야 하고, 재무부는 계속해서 재정증권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 의도를 했든 안했든 미국의 통화, 재정당국의 니즈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음

특은채 주도 발행시장

올해 1분기 은행채 발행시장은 특수은행이 주도. 연초 이후 은행채는 66조원이 발행됐는데, 이 가운데 80%인 54조원이 특수은행 물량. 특히 중금채를 중심으로 발행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특은채 비중이 높아짐. 특은채 발행 확대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 강화에 기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2030년까지 총 550조원을 지원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특은채 발행 확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최근 금리 불확실성이 높아졌지만 특은채 1년물 스프레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구간 수급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특은채는 위험가중치 0%가 적용되는 초우량물로 은행권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보하고 있음. 현재 유통시장에서도 민평 대비 높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발행이 늘어나더라도 은행을 중심으로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I. 채권시장 전망

1. 채권: Coincidence

재정증권 보유량을 늘려야 하는 연준

연준은 재정증권 매입을 확대 중이고, 앞으로도 한동안 그럴 것이다. 자산에서 재정증권 비중을 늘려가는 기조는 연준 의장과 구성원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유지될 것이다. 대차대조표를 축소하고 싶어하는 이들도, 현 수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들도 단기 국채 위주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축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부채 특성, 장기 국채 비중 축소 필요성 때문

연준의 부채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에는 준비금과 TGA(재무부 일반계정) 등이 있다. 이 항목들 특성상 모두 유동성이 풍부한 단기 자산으로 매칭해 놓는 것이 맞다. 재정증권이 필요한 이유다. 그 다음으로는 장기채권을 줄여야 한다. 단기 시장은 통화정책이 직접적으로 투영되는 구간이다. 반면, 장기 구간은 시장 참가자들의 성장과 물가 전망이 반영되어 가격이 결정된다. 현재 연준의 존재는 그 자체로 시장 메커니즘을 왜곡시킨다.

지금도 장기채는 너무 많고, 단기채는 너무 적다

이런 시장에 연준은 지금도 압도적으로 큰 단일 투자자다. 2025년 4분기 기준 미국 전체 잔존 중장기 국채(시장성 국채 기준)는 21.2조달러다. 이 중 16.7%인 3.6조달러가 연준 소유다. 이 마저도 QT로 인해 1.4조달러가 줄어든 수치다. 반면, 재정증권은 보유량을 급격하게 늘려가고 있으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QT 종료 이후 2,171억달러어치를 매수했음에도 연준의 전체 국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6%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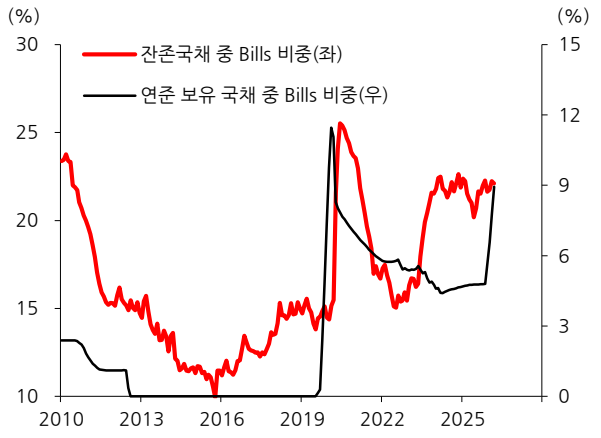
재무부는 단기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정부(재무부)는 돈을 많이 쓰고 싶어한다. 그런데 이표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사실상 한계 수준이다. 금리도 너무 높고, 재정 건전성과 대외 신인도 약화로 투자심리도 예전 같지않다. 좋든 싫든 재정증권 발행으로 씀씀이를 메꿔야 한다. 연준은 재정증권을 계속해서 사들여야 하고, 재무부는 계속해서 재정증권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통화, 재정 당국의 Coincid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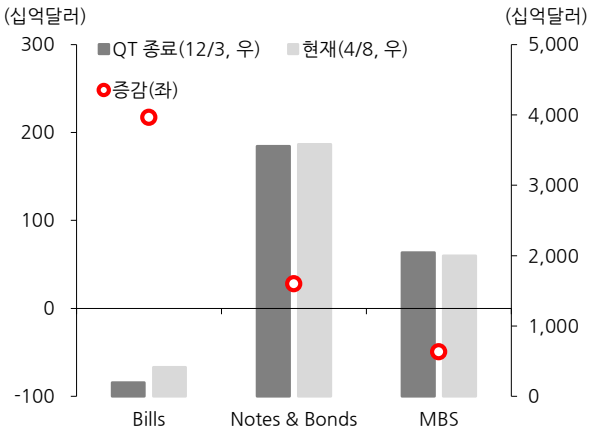
우연과도 같은 수요와 공급의 일치라고 볼 수 있다. 연준은 금리를 내리고, 재무부는 낮아진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연준은 시장에 공급되는 재정증권을 사들인다. 의도를 했든 안했든 미국의 통화, 재정당국의 니즈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다.

[그림1] 재무부가 발행하면 연준이 받아주는 구조 가능



자료: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New York Fed,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QT 종료 이후 연준 채권 보유량 변화



자료: New York Fed,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 크레딧: 특은채 주도 발행시장

은행채 발행시장 특은채가 주도

올해 1분기 은행채 발행시장은 특수은행이 주도했다. 연초 이후 은행채는 66조원이 발행됐는데, 이 가운데 80%인 54조원이 특수은행 물량이다. 특히 중금채를 중심으로 발행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특은채 비중이 높아졌다. 올해 중금채 발행액은 24조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발행액 54조원의 45% 수준에 도달했다. 반면, 시중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순상환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생산적 금융 기조 강화, 발행 확대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특은채 발행 확대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 강화에 기인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626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면서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중소·중견기업 자금 지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2030년까지 총 550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벤처 기업 등을 중심으로 300조원 이상의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특은채 발행 확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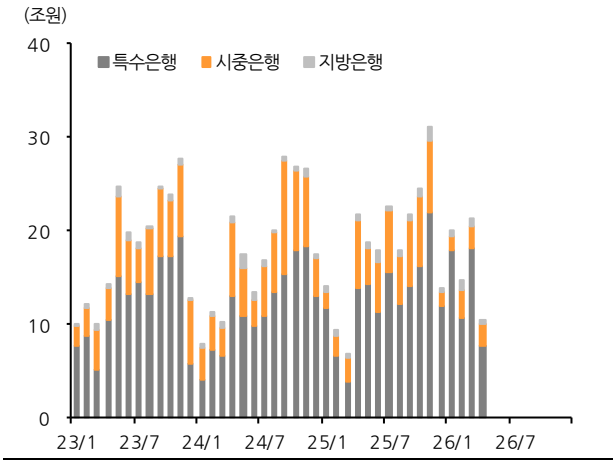
발행 만기는 짧아짐

최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발행 만기는 짧아지고 있다. 지난해 1년 미만 초단기물로 발행된 특은채는 11조원 수준이었고, 올해는 이미 9조원 이상이 발행되며 단기물 선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장기물 금리 부담이 높아지면서 단기물 발행이 조달 비용 측면에서 유리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은행 중심으로 수요 유입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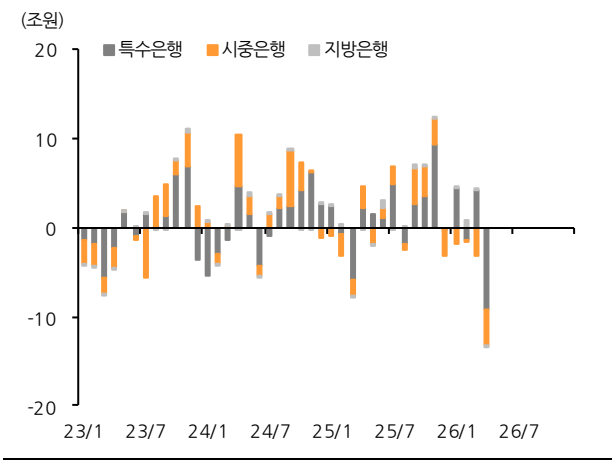
금리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특은채 발행이 늘면서 3년 기준 스프레드는 연말 16.8bp에서 24.0bp로 확대됐다. 다만, 올해 1년물 평균 스프레드는 17.9bp로 3년 평균치 22.5bp를 하회하고 있어, 단기구간 수급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은채는 위험가중치 0%가 적용되는 초우량물로 은행권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유통시장에서도 민평 대비 높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발행이 늘어나더라도 은행을 중심으로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3] 은행채 발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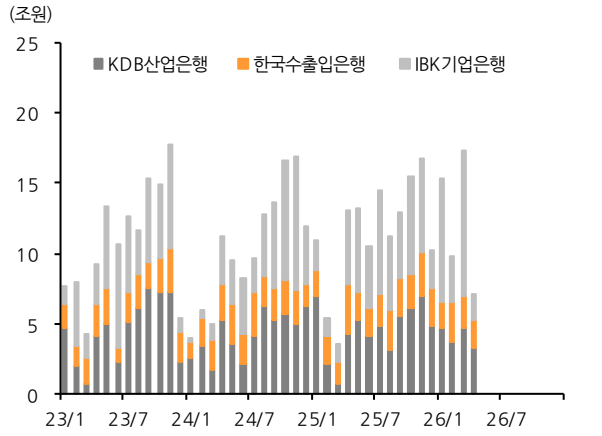
주: 2026년 4월은 4/10 누적 기준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은행채 순발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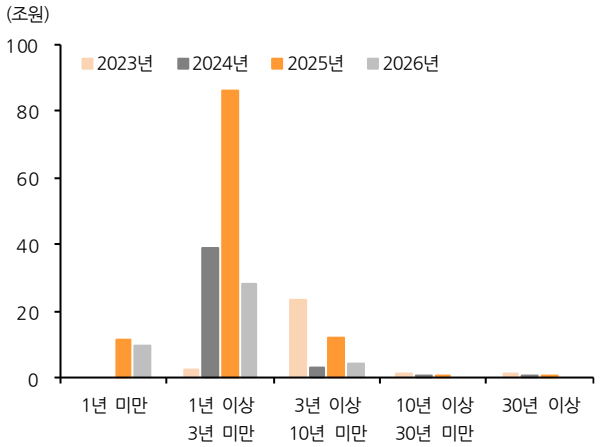
주: 2026년 4월은 4/10 누적 기준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특은채 발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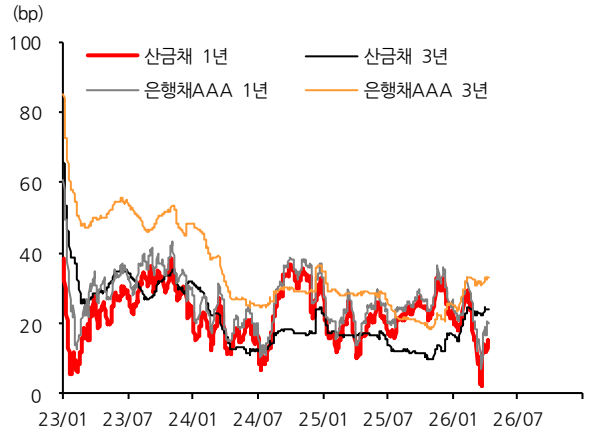
주: 2026년 4월은 4/10 누적 기준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단기물 중심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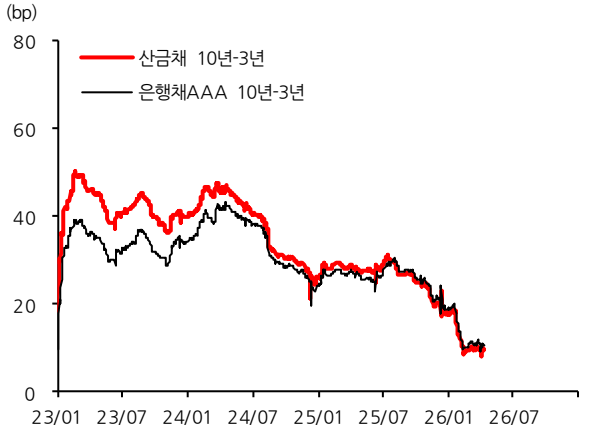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은행채 신용 스프레드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은행채 장단기 스프레드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3. 전략: 전쟁만 빼고 보면 평온한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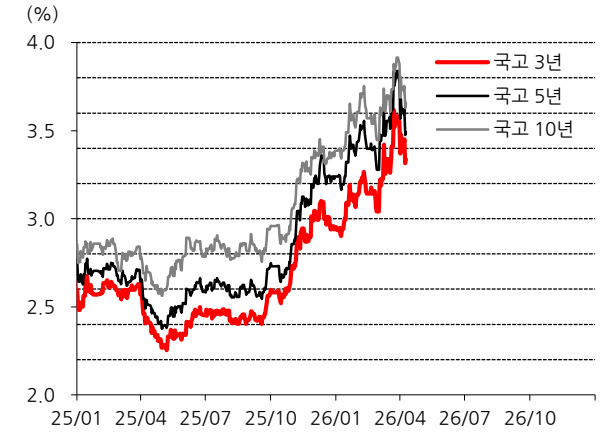
국고 3년: 3.30~3.40%
국고 10년: 3.45~3.55%

이번주 국고채 금리 밴드는 3년, 10년 각각 3.30~3.40%, 3.45~3.55%를 제시한다. 가장 큰 이벤트였던 금통위가 종료되었다. 그 금통위에서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한 명확한 시그널을 찾아내기가 어려웠다. 철저하게 중립적이었던 통화정책회의였다. 여기에 더해 중앙은행 인사들 연설을 제외하면 특별한 이벤트도 예정되어 있지 않다. 전쟁 전 개양상이 또 다시 크게 바뀌지 않는 한 평온한 장세를 예상한다.

주중 주요국 중앙은행 인사 연설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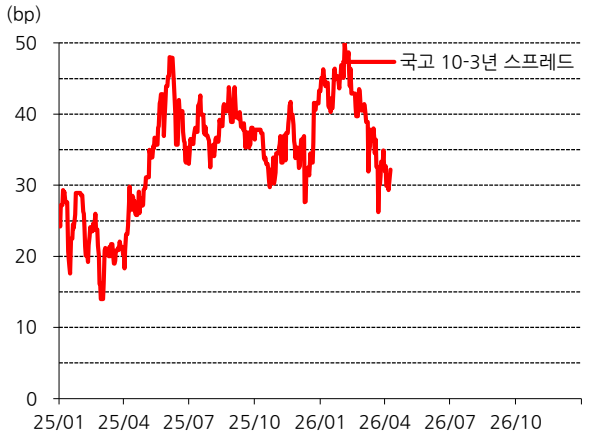
미국 시간 기준 4월 13일부터 18일까지는 IMF와, World Bank 춘계 회의가 개최된다. 4대 중앙은행 총재와 주요 인사들, 이창용 총재 연설도 잇따라 예정되어 있다. 이란 전쟁으로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이들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 중앙은행 중에서는 ECB가 2분기 중 첫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그림9] 주요 국고채 금리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국고 10-3 년 스프레드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예상 금리 Range

금리, 스프레드	동향(대비)			예상 Range	방향성
	연초	월초	전주(4/9)		
국고 3 년	2.95%(+38.5bp)	3.37%(-3.2bp)	3.34%(-11.0bp)	3.30~3.40%	약보합
국고 5 년	3.24%(+25.0bp)	3.57%(-7.7bp)	3.49%(-13.7bp)	3.45~3.55%	약보합
국고 10 년	3.39%(+27.5bp)	3.69%(-2.9bp)	3.66%(-8.7bp)	3.63~3.73%	약보합
국고 10-3 년	43.2bp(-11.0p)	31.9bp(+0.3bp)	32.2bp(+2.3bp)	25.0~35.0bp	축소
미국 10 년	4.17%(+10.8bp)	4.32%(-4.4bp)	4.28%(-5.9bp)	4.25~4.40%	약보합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4. 통화정책 Tracker

[표1] 중앙은행 인사 발언 주요 내용

일자	성명 (직책)	성향, 투표권	발언 주요 내용
4/8	John Williams (뉴욕 연은 총재)	중립, O	- 이란 전쟁은 헤드라인 물가를 끌어올릴 것. 연간 물가 상승률은 약 2.75% 예상 - 본인은 기조적 물가 흐름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음. 근원 물가 환경에는 큰 변화가 부재. 전쟁 관련 근원 물가 상승 폭은 0.1~0.2%p - 관세는 지금도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통화정책은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적절한 수준(exactly where it needs to be)에 위치 - 연간 GDP 성장률은 2.0~2.5% 전망. 실업률은 안정적인 흐름 이어갈 것 - 고용시장 상황은 꽤나 복잡함. 그러나 실업률은 더욱 안정적으로 바뀌고 있음 - 기조적 물가상승률은 연말 갈 수록 둔화될 것 - 미국 경제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회복력을 보유. 테크 산업은 생산성 개선이 기여 중 - 고용시장은 물가 자극 요인이 아님
4/9	Austan Goolsbee (시카고 연은 총재)	중립, X	- 유가 상승은 스태그플레이션 요인 - 지금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 연준 입장에서도 별다른 묘수(no obvious cookbook)가 없음 - 경제 상황을 주의깊게(cautious and nervous) 관찰 중 - 적은 채용, 적은 해고도 불확실성 요인 중에 하나. 그러나 현재 상황은 외부 환경에 기인. AI 때문은 아님 - 높은 물가 흐름이 길게 이어질 수록 경제에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됨 - 오일 쇼크는 일시적일 것으로 희망 - 갤런당 5달러가 넘는 가스 가격은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것 -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음 - 유가 관련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 그러나 스태그플레이션은 어디까지나 최악의 시나리오
4/9	Philip Jefferson (연준 부의장)	중립, O	- 경제 전망 경로에 불확실성이 증가. 유의깊게 지켜보고 있음. 고용에는 하방 압력이, 물가에는 상방 압력이 커져가는 상황 - 미국 고용시장은 대체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부정적 충격에 취약해진 상태 - 통화정책은 적절한 수준(well-positioned to respond)에 위치. 기준금리는 중립 범위 안으로 복귀(broadly in range of neutral) - 상승한 에너지 가격이 고착화될 경우 가계와 기업지출을 제한할 것
4/8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	- 높은 환율 수준이 지속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내수기업 및 서민 부담을 가중해 경제 양극화로 이어질 가능성.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은 강건하고 달러 유동성도 양호. 환율만으로 위기 상황과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 환율 변동성이 과도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 - 정부와 협력, 외환시장 신뢰를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적기에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것 - 현재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큰 폭 상승하고 에너지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물가의 상방압력과 성장의 하방압력이 모두 높아진 상황 - 이론적으로 일시적인 공급 충격에 대해서는 통화정책 대응이 불필요. 그러나 충격이 장기간 지속되 기대 인플레이션 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고물가 고착을 막기 위한 대응을 고려할 필요 - 통화정책은 중동 상황 전개와 이에 따른 물가와 성장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히 결정해 나가는 것이 적절. 유가 충격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단기적으로 목표치인 2%를 상회할 수 있으나, 물가안정 목표는 단기 변동보다 중장기 물가 경로를 고려해 설정해야 함 - 반도체 경기 호조, 정부의 추경 등이 충격을 일정부분 완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물가와 경기에 대한 영향이 크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정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 - 원론적인 입장에서 일시적 공급충격에 대해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외환보유액은 대규모 순대외금융자산, 낮은 대외부채 비율 및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대외 충격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는데 부족하지 않은 수준 - 가계부채는 여전히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으로 추정되고 주요국에 비해서도 높은 상황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2] 중앙은행 인사 발언 주요 내용

일자	성명 (직책)	성향, 투표권	발언 주요 내용
4/10	Mary Daly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중립, X	- 아직까지 소비와 투자에 특이사항은 부재(so far, consumers are still spending, businesses still investing) - 미국 경제의 기초체력은 양호(good place) - 유가가 얼마나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지가 관건.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움 - 중요한 것은 연준이 시장이나 뉴스처럼 그때그때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
4/10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	- 공급 충격이 일시적일 경우, 금리 조정을 통해 대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그러나 공급 충격이 장기화되고, 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지면 정책 대응이 필요 - 공급 충격은 러우전쟁보다 더 클 가능성 -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상승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 현 시점에서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 - 이번 추경은 부채를 통해 조달한 것이 아닌 초과 세수를 통해 조달되었기 때문에 긍정적 - 현재 환율 약세 흐름은 중동 사태와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가 주도. 이란 상황이 안정되면 환율은 빠르게 내려올 가능성 - 환율은 레벨보다 달러 인덱스 대비 변화를 보는 것이 적절 - 외환시장이 흔들릴 때 대미투자를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 - WGBI 관련 자금 유입 규모는 11억달러. 자금 유입은 초기에 집중될 것 -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현 상황에서 시장금리를 보고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움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Ⅱ. 채권시장 동향

선진국 금리: 하락

선진국에서는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 휴전 기대와 유가 급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가 시장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유럽 주요국 금리는 전쟁으로 크게 높아졌던 에너지 가격이 일부 되돌려지며 장기금리 위주로 하락 폭이 컸다. 다만, 휴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어 시장 강세 강도는 주 후반 갈수록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금리: 하락

미국 시장도 강세 마감했다. 주 초반에는 3월 고용 지표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며 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미국-이란 간 14일 휴전 합의 소식에 강세 전환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휴전 협상 불확실성이 재차 커지면서 강세 폭이 제한되었다. 2월 PCE 물가는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신흥국 금리: 하락

신흥국도 대부분 금리가 하락했지만 전반적으로 고유 리스크 프리미엄이 완화된 국가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튀르키예는 -86.0bp로 가장 큰 폭 하락했고, 브라질 -20.8bp, 인도 -15.2bp, 인도네시아 -10.4bp도 강세를 보였다. 멕시코, 중국, 말레이시아 등은 강보합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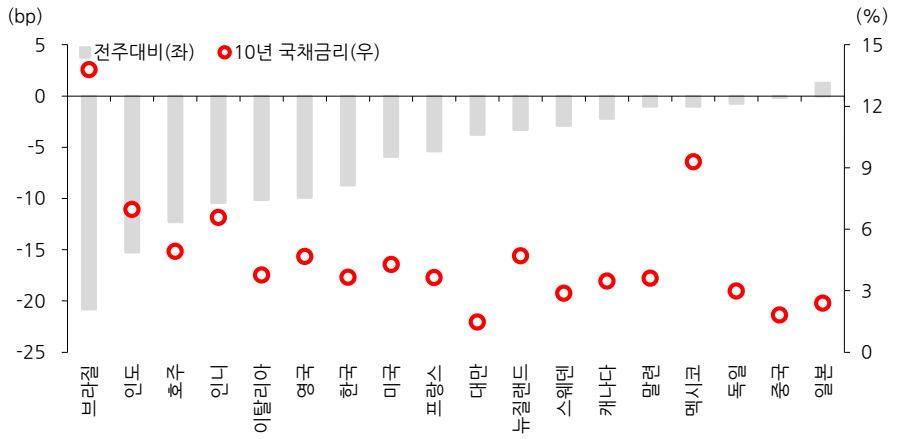
국고채 금리: 하락

국고채 금리는 만기별 전 구간 하락 마감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이란 휴전과 유가 급락이 글로벌 금리 하락을 이끌었고, 국내적으로는 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에너지 수급 안정 조치와 함께 4월 10일 금통위를 앞둔 관망 심리가 겹치며 금리가 하락했다. 국고 3년, 10년 금리는 전주 대비 각각 11.0bp, 8.7bp 하락한 3.34%, 3.66%를 기록했다.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

민평 기준 국고 3년, 10년 금리는 전주 대비 각각 11.5bp, 8.9bp 하락한 3.33%, 3.66%를 기록했다. 4월 대규모 만기도래를 앞둔 차환 부담 우려가 지속되었지만. CJ프레시웨이가 600억원 모집에 4,960억원, SK네트웍스가 1,500억원 모집에 8,300억원을 모으는 등 우량 발행물에는 자금이 집중되었다. 우량물 중심의 선별적 수요는 유지되었다. 국고 3년 대비 동일만기 회사채 AA- 스프레드는 66.6bp로 전주 대비 1.7bp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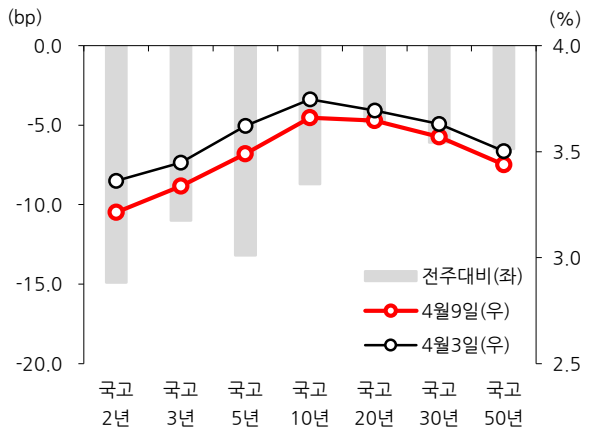
[그림11] 주간 주요국 채권 금리 변동 추이



주: 4/9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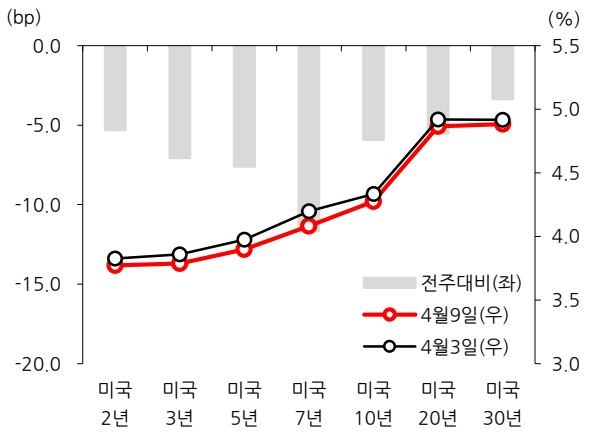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주간 국고채 수익률 커브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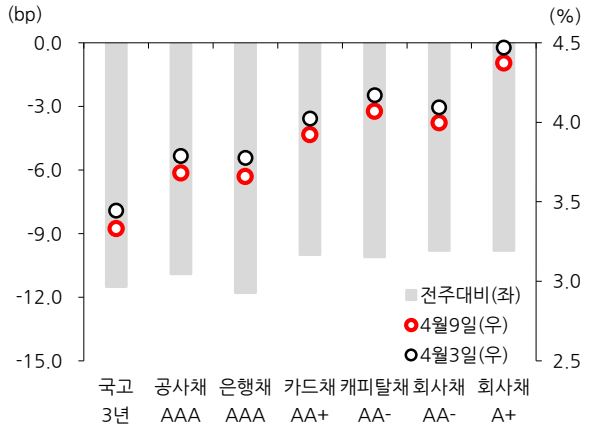
주: 4/9 종가 기준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주간 미 국채 수익률 커브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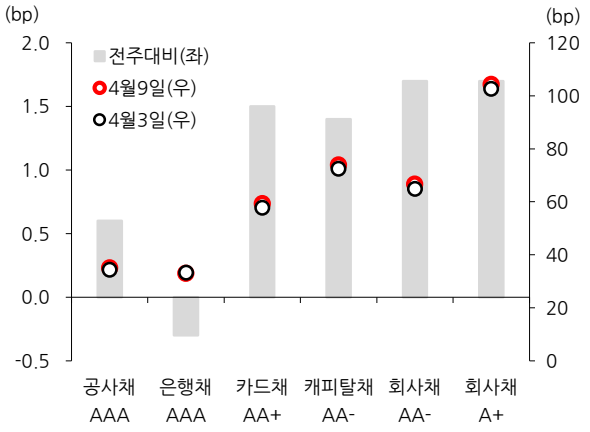
주: 4/9 종가 기준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주간 주요 크레딧 금리 변동



주: 4/9 종가 기준. 민평 3사 기준 3년 만기 금리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주간 주요 크레딧 스프레드 변동



주: 4/9 종가 기준. 민평 3사 기준. 스프레드는 국고 3년에서 동일만기 금리를 차감한 값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3] 채권 신용등급 변동

기업	평가일	직전등급	전망	변경등급	전망	평가사
포스코인터내셔널	2026.04.07	AA-	안정적	AA-	긍정적	한국기업평가
	- 사업포트폴리오 강화로 수익구조 더욱 안정화, 실적변동성 완화 - 가스전 개발, 터미널 확장, 팜농장 인수로 이익창출력 제고 전망 - 투자 부담에도 제고된 현금창출력을 통해 우수한 재무안정성 유지 전망					
삼양식품	2026.04.08	A+	긍정적	AA-	안정적	한국기업평가
	- 글로벌 수요 증가추세에 기반하여 해외사업 중심의 실적호조 지속 - 생산설비 증설효과 등에 힘입어 실적 성장세 지속 전망 - 투자부담 지속에도 현 수준의 매우 우수한 재무구조 유지 전망					
현대로템	2026.04.10	A+	긍정적	AA-	안정적	한국기업평가
	- 국내 사업기반 안정적인 가운데 방산 수출 확대로 수익구조 개선 - 우호적인 방산업황 토대로 실적 호조 예상 - Capa 증설 등 투자자금 소요 불구 매우 우수한 재무안정성 유지 전망					
대신에프앤아이	2026.04.08	A	긍정적	A+	안정적	한국신용평가
	- 우호적 시장환경, 부실채권 투자여력 제고 및 점유율 상승 - 자산포트폴리오 개선에 따른 자산부실 위험 완화 - 양호한 수익성과 자본적정성					
화신	2026.04.08	BBB	긍정적	BBB+	안정적	NICE신용평가
	-현대자동차그룹 1차 협력사로서의 양호한 사업기반 - 자동차부품 섀시(chassis)부문 내 국내 수위권의 시장지위 - 미국 공장 납품물량 증가 등으로 매출 및 이익규모 확대 - 회사의 미국 앨라배마, 조지아 공장으로 현대차그룹의 미국 생산 확대에 대응 가능할 전망 - 미국 조지아 신규 공장의 완공으로 향후 시설투자 부담은 점차 완화될 전망 - 시설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이익창출로 재무안정성은 양호한 수준					
아이엠캐피탈	2026.04.09	A+	긍정적	AA-	안정적	NICE신용평가
	- 신동부문과 방위산업부문으로 분산된 사업포트폴리오, 우수한 시장지위에 기반한 사업안정성 - 방위산업 해외수출 확대를 바탕으로 이익창출력 제고 - 확대된 현금창출능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재무안정성 유지할 전망					
풍산	2026.04.09	A+	긍정적	AA-	안정적	NICE신용평가
	- 신동부문과 방위산업부문으로 분산된 사업포트폴리오, 우수한 시장지위에 기반한 사업안정성 - 방위산업 해외수출 확대를 바탕으로 이익창출력 제고 - 확대된 현금창출능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재무안정성 유지할 전망					

주: 무보증/공모 회사 및 금융채

자료: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4] 기업 신용등급 변동

기업	평가일	직전등급	전망	변경등급	전망	평가사
케이카캐피탈	2026.04.06	BBB	긍정적	BBB+	안정적	한국기업평가
	- 자산성장세 지속 및 영업기반의 안정성 제고 -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우수한 수준으로 유지 - 최대주주 변경이 계열지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한화엔진	2026.04.10	BBB-	긍정적	BBB	안정적	한국기업평가
	- 수주잔고의 양과 질이 모두 개선되며 실적 호조 지속될 전망 - 영업현금창출력 제고로 잉여현금 흑자 지속되며 재무안정성 개선 - 신사업 지분투자 등 자금소요에도 우수한 재무안정성 유지 예상					

자료: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Ⅲ. 채권시장 주요일정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3	14	15	16	17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 연설 **(미국)** 3월 기존주택판매 (전월비: 1.7%, 전년비: -1.5%)	**(미국)** 3월 NFIB 중소기업낙관지수 (전월: 98.8, 전년: 97.4) 3월 PPI (전월비: 0.7%, 전년비: 3.4%) **(중국)** 3월 수출입(위안화) (수출 전월비: 6.6%, 전년비: 36.1%) (수입 전월비: 5.3%, 전년비: 10.9%)	Bailey 영란은행 총재 연설 Goolsbee 시카고 연은 총재(중립, X) 연설 Paulson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중립, O) 연설 Lagarde ECB 총재 연설 **(한국)** 3월 수출입물가 (수출 전월비: 2.1%, 전년비: 10.7%) (수입 전월비: 1.1%, 전년비: 1.2%) 3월 실업률 (전월: 2.9%, 전년: 2.8%) 2월 M2 통화공급 (전월비: 0.7%, 전년비: 4.6%) **(미국)** 4월 뉴욕 연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지수 (전월: -0.2, 전년: -8.6) 3월 수출입물가 (수출 전월비: 1.5%, 전년비: 3.5%) (수입 전월비: 1.3%, 전년비: 1.3%) 4월 NAHB 주택시장지수 (전월: 38.0, 전년: 40.0) **(유로존)** 2월 산업생산 (전월비: -1.5%, 전년비: -1.2%)	미국 연준 Beige Book Bailey 영란은행 총재 연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연설 Bowman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온건, O) 연설 Williams 뉴욕 연은 총재(중립, O) 연설 **(미국)** 4월 필리델피아 연은 업황전망 (전월: 18.1, 전년: -12.9) 3월 산업생산 (전월비: 0.2%, 전년비: 1.4%) **(유로존)** 3월 CPI, Core CPI (CPI 전월비: 1.2%, 전년비: 2.5%) (Core 전월비: 0.8%, 전년비: 2.3%) **(중국)** 1분기 GDP (예상(y): 4.8%, 전분기비: 1.2%, 전년비: 4.5%) 3월 소매판매 (예상(y): 2.4%, 전월비: 0.8%, 전년비: 0.9%) 3월 산업생산 (예상(y): 5.3%, 전월비: 0.8%, 전년비: 5.2%)	미국 연준 Black Out(~5/1) **(유로존)** 2월 경상수지 (전월: +379억€, 전년: +201억€)
국고 10년 입찰 2조 9,000억원 통안 3개월 입찰 5,000억원 은행 만기 3,000억원 카드 회사 만기 6,110억원	국고 통안 만기 6,000억원 은행 만기 1조 8,200억원 카드 회사 만기 3,510억원	국고 통안 3년 입찰 1조원 은행 만기 6,700억원 카드 회사 만기 2,330억원	국고 통안 은행 만기 2조 2,900억원 카드 회사 만기 4,250억원	국고 통안 은행 만기 1조 7,800억원 카드 만기 1,800억원 회사 만기 4,020억원
20	21	22	23	24
	브라질 휴장(띠라덴치스 추모일) **(미국)** 3월 소매판매 (전월비: 0.6%, 전년비: 3.7%) 3월 미결주택판매 (전월비: 1.8%, 전년비: -0.6%) **(유로존)** 4월 ZEW 경기전망지수 (전월: -8.5, 전년: -18.5)	**(한국)** 3월 PPI (전월비: 0.6%, 전년비: 2.4%)	**(한국)** 4월 CSI (전월: 107.0, 전년: 93.6) 1분기 GDP(속보) (전분기비: -0.2%, 전년비: 1.6%) **(미국)** 20년 국채 입찰(Reopening) (4.82%, 간접: 69.2%, 응찰률: 2.76배) 3월 시카고 연은 연방 국기활동지수 (전월: -0.11, 전년: 0.15)	**(미국)** 4월 캔자스시티 연은 제조업활동지수 (전월: 11.0, 전년: -2.0) 4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심리지수(확정) (전월: 53.3, 전년: 52.2)
국고 5년 입찰 2조 9,000억원 통안 3개월 입찰 5,000억원 은행 만기 2,800억원 카드 만기 300억원 회사 만기 3,650억원	국고 20년 입찰 5,000억원 통안 만기 6,000억원 은행 만기 1조 5,600억원 카드 회사 만기 2,870억원	국고 통안 은행 만기 9,400억원 카드 만기 1,400억원 회사 만기 2,100억원	국고 통안 은행 만기 1조 5,700억원 카드 만기 1,900억원 회사 만기 6,300억원	국고 통안 은행 만기 9,900억원 카드 만기 3,400억원 회사 만기 9,570억원

주: 한국 시간 기준, 중앙은행 인사 'O', 'X'는 당해년도 투표권 보유 여부, 자료: 연합인포맥스,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